현안과 과제 10-18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2010. 7. 6.

새롭게 부상하는 아프리카

– 경제적 매력과 접근 전략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1.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고조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경제 성장세 지속, 정치적 리스크 감소 등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고조

- **월드컵 개최 :**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
  - **월드컵의 역사 :**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이 개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번째 월드컵이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
  - **아프리카의 개요 :** 총인구는 10억 명(2009년), 총면적은 약 2,936.7㎢에 이르고 53개의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 **아프리카 성장세 지속 :**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
  - 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 원유 수출 국가들은 2009년 3.9%이고 2010년 6.8%, 2010년 7.1%로 높은 성장률 기록 전망
  - 이집트와 모로코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각각 4.7%, 3.2%이고, 2010년 5.0%, 3.2%, 2010년 5.5%, 4.5%를 기록할 전망

- **정치적 리스크 감소 :** 2000년대 들어 분쟁 감소, 내전 종결 등으로 정치적 리스크 감소는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위험 감소로 이어짐

<아프리카 주요 지표>

주요 지표	아프리카
인구(억 명)	10
인구밀도(인구수/㎢)	85
국가(개)	53
면적(만 ㎢)	2936.7
GDP(억 달러)	15,610
1인당 GDP(ppp 달러)	2,777
GDP성장률(2008~2008년 평균, %)	5.3
FDI 유입(억 달러)	876.5
ODA (억 달러)	380

<아프리카 주요국 성장률>

	2009년	2010년	2011년
원유 수출국	3.9	6.8	7.1
나이지리아	5.6	7.0	7.3
앙골라	-0.4	7.1	8.3
가봉	-1.4	5.4	4.9
콩고공화국	7.6	12.1	6.6
원유 수입국	4.7	4.6	5.2
이집트	4.7	5.0	5.5
모로코	5.2	3.2	4.5

자료 : OECD, *Africa Economic Outlook*, 2010. Mckinsey, *Lions on the move*, 2010.
주 : 인구, FDI, ODA는 2009년, 나머지 지표는 2008년 기준 임.

○ 광물 자원의 보고(寶庫)

- 원유의 경우 북해와 동아시아의 개발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음[1)]
  - 아프리카에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9%가 분포. 리비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알제리 3국이 아프리카 원유매장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을 포함
  - 아프리카의 확인 매장량은 10년 전의 약 750억 배럴에서 2007년 현재 약 1,000억 배럴로 증가하였고 산유량은 10년 전 1일 평균 약 750만 배럴에서 2007년 현재 약 1,200만 배럴로 증가[2)]

- 천연가스는 세계의 약 8%에 해당하는 양이 분포. 2010년에는 미국과 유럽 수요의 약 절반 정도인 연당 7,000만 톤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

- 광물 생산량에서도 세계 8%의 비중을 차지. 특히 코발트, 다이아몬드, 백금은 세계 매장량의 각각 75%, 47%, 45%를 차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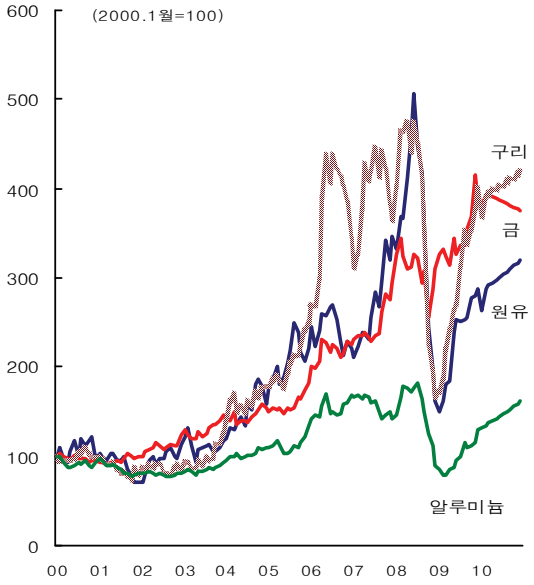
- 국제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자원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 원유(브렌트유)는 2008년 6월에 506.5(2000년 1월=100)로 고점 기록 후 2009년 1월 150.8까지 하락. 이후 상승세 전환 후 2010년 12월 320.3 기록 전망

<아프리카 자원 분포>

국가	주 요 자 원
알제리	- 원유 118억 배럴, 가스 1,604조 입방피트, 수은 2,000 톤(3위)
리비아	- 원유 39억, 가스 52.8
모로코	- 인광석 5억 7,000만톤 (1위), 중정석 1,000만톤(5위), 인 50만 톤(9위)
나이지리아	- 원유 353억 배럴, 가스 176.4조 입방피트, 탄탈륨 7,000 톤(2위)
짐바브웨	- 세슘 2만 3,000톤(2위), 크롬 4,300만 톤(3위), 백금족 2억 3,140만 troz(4위), 리튬 2만 3,000톤(7위)
남아프리카공화국	- 백금족 20억 troz(1위), 금 6,000톤(1위), 영석 4,100만 톤(1위), 지르코 1,400만 톤(1위), 티타늄 7,100만 톤(1위), 다이아몬드 7,000만 톤 개럿(4위), 우라늄 29만 2,800만 톤U(4위),

자료 : 미쯔이물산전략연구소, '자원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아프리카', 2008.

<주요 자원 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IMF; World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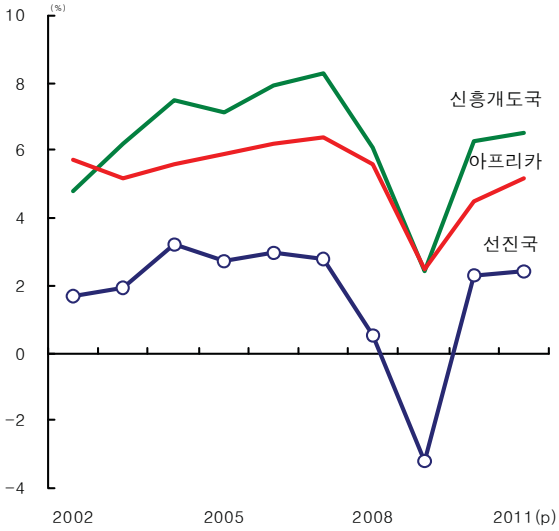
1) 참조 「참고 : 아프리카 자원 분포」, 본보고서, p. 16.
2)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아프리카의 석유매장량은 56.5% 증가하여 세계 평균 증가율인 15.2%를 상회.
3) 서상현, '아프리카의 역사와 정치·경제',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2007년.

○ 신소비 시장으로 부상(浮上)

- **아프리카 시장 규모 확대** : 아프리카의 발전 및 자원가격의 급증에 따른 GDP 증가로 아프리카 내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2000~2008년 기간 중 평균 5.3% 성장 기록. 인구는 2008년 9억 8,790만 명에서 2009년 10억 명으로 세계 인구 68억 명의 14.7%
  - 이집트와 리비아 등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에 있어 신소비 시장으로써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GDP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남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 등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 소비가 증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인당 GDP는 2008년 9,456달러로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 내수의 고성장을 지탱하는 것은 가계의 소비와 민간 설비투자 및 정부의 공공투자임
  - 인구의 80%를 구성하고 있는 흑인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단가가 높은 내구재의 소비를 늘리고 있음
  - 설비투자, 주택투자 및 공공투자 등이 2006년 2/4분기에 전년대비 9.5% 증가했으며 이의 배경에는 수출증가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한 국내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설비투자 의욕이 왕성하기 때문
  - 특히 2010년에 월드컵 개최 등으로 공항, 도로 등의 공공투자가 확대됨

<주요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1) OECD, Africa Economic Outlook, 2010.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아프리카 주요국 지표>

	인구 (만명)	면적 (만 ㎢)	1인당 GDP (ppp $)	GDP (ppp, 백만$)
남아공	4,967	121.4	9,456	461,767
나이지리아	15,121	91.1	2,085	315,823
알제리	3,437	238.2	6,054	208,113
앙골라	1,802	124.7	7,699	134,722
케냐	3,877	56.9	2,123	81,832
리비아	629	176.0	11,765	7,392.3
이집트	8,153	99.5	5,914	454,460
모로코	3,161	44.6	4,425	139,852
아프리카	98,709	2,936.7	2,777	2,675,993

자료 : United Nations.

- **원유 수출로 인해 소비력이 증가하는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는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승용차와 버스, 트럭의 수입이 느는 등 최근 소비증가 경향이 확연
  · 나이지리아는 2005년 기준 하루 236만 배럴을 생산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원유/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지속되는 유가 급등 및 신규 해저 유전의 발굴 등에 의해 GDP 증가율이 2000~2008년 기간 중 평균 8.4% 성장 기록

-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에 의한 소비** : 모리셔스의 경우, 1인당 GDP가 10,000 달러를 넘고 있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진 상태임
  · 모리셔스는 설탕산업 중심에서 섬유·관광 산업으로 발전한 나라임
  · 이외에도 인구가 적지만 1인당 GDP가 10,000 달러를 넘는 나라들(세이셀, 리비아, 가봉, 보츠와나 등)에 의해 내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인당 GDP 및 경제성장률 >

국가	1인당 GDP(PPP, 달러)	경제성장률 (2000~2008년, 평균, %)
모리셔스	12,637	3.6
세이셀	20,881	3.0
리비아	11,765	5.1
가봉	17,371	2.1
보츠와나	12,94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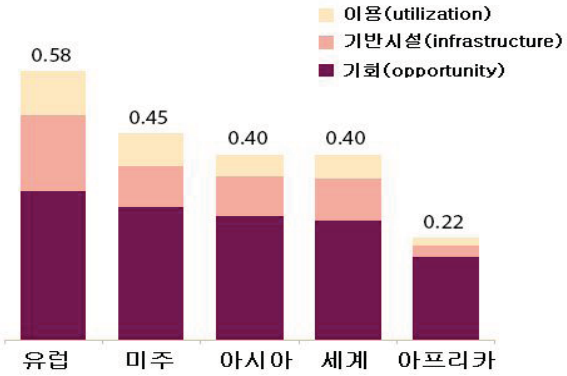
자료 : United Nations.

-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수입 증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잠재적인 소비여력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
  ·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2020년까지 4,800만 명 곧, 2000년보다 3배가 증가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총수입 200억 달러를 올릴 것으로 예상
  · 관광수입이 1억 달러를 넘고 수출액의 10%를 넘는 나라는 가나, 세네갈,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모리셔스, 세이셀의 12개국임
  · 고원지대의 야생생물공원, 인도양의 해변과 같은 자연 자원의 개발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디지털정보화의 진전

- 아프리카지역은 정보화 기회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음
  · 2006년 현재 '디지털정보 접근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는 0.22로 아시아와 세계평균인 0.4에 크게 뒤짐
  ·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은 '기회(O)'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음
  · 디지털정보 접근지수는 '기회', '기반시설 (I)', '이용 (U)'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회'요인 중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인구비율이 중요한 역할

< 2006년 현재 지역별 평균 디지털정보 접근지수(DOI) >



자료: ITU/UNCTAD,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May 2007.

- 지난 2년 사이 가장 순위가 크게 오른 10개 국가 중 5개국이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동통신의 보급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
  · 접근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모로코이고 3위에 세네갈, 4위에 가나가 위치
  · 이 외 6위에 가봉, 9위에 코트디브와르가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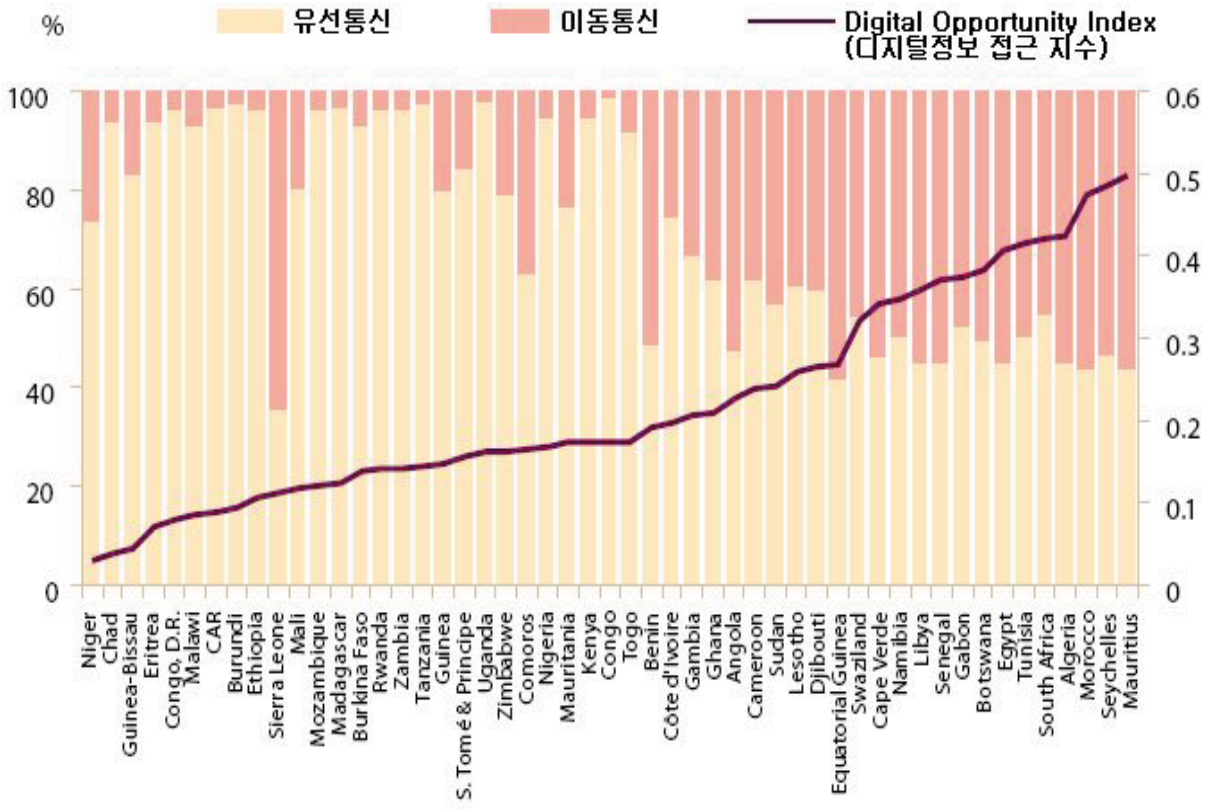
< 디지털정보 접근지수 증가 상위국 >

국가	2004년 DOI	2006년 DOI	2004년 순위	2006년 순위	증가	동인
1. 모로코	0.33	0.47	104	68	+36	U
2. 러시아 연방	0.38	0.52	78	51	+27	I, U
3. 세네갈	0.22	0.37	128	106	+22	O, U
4. 가나	0.10	0.21	161	142	+19	O
5. 안티구아와 버뷰다	0.44	0.57	58	40	+18	I, U
6. 가봉	0.26	0.37	121	103	+18	O
7. 벨리제	0.34	0.42	100	84	+16	U
8. 부탄	0.12	0.22	155	140	+15	O
9. 코트드브와르	0.12	0.20	158	145	+13	O
10. 루마니아	0.42	0.52	63	50	+13	U

자료 : ITU/UNCTAD,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May 2007.
주 : 1) U (이용), I (기반시설) 그리고 O (기회). 2) 코트드브와르의 영어명은 아이보리코스트 임.

- **무선통신으로 도약** : 국가별 비교는 아프리카가 유선통신을 뛰어넘어 단숨에 무선통신의 시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앙골라, 적도기니, 세네갈, 가봉 등의 국가들에서 이동통신 보급률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정보 접근지수가 높은 모리셔스, 세이셀 등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로 향후 GDP 증가에 따라 디지털정보 접근 능력이 제고될 것임
  - 이와 같은 무선통신의 시대의 증대는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아프리카 각국의 디지털정보 접근지수 >



자료: ITU/UNCTAD,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May 2007.

○ 우회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 부각

- 아프리카는 EU의 일방적인 특혜관세 지역
  - 1957년 '로마조약 (Rome Treaty)'에는 과거 식민지였던 22개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증진 내용 포함
  - 1964년 '야운데 협정 (Yaounde Convention)'이 EC와 22개 아프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태평양 지역 국가 사이에 체결
  - 1975년의 '로메협정 (Lome Convention)'은 영국의 EC가입으로 과거 영국식민지였던 영연방국가들이 포함되었고 이전까지 표방했던 형식적인 상호주의대신에 EC의 일방적인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특혜부여조치가 채택
  - 이런 원칙은 1980년부터 5년마다 이루어진 로메협정의 개정에서도 지켜졌으며 조약서명국이 증가함으로써 혜택의 대상 증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시작

- 미국은 2000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함
  - 2000년 10월 2일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 특혜를 베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을 공포
  - 기본적인 조건[4]을 만족시키는 모든 국가에 경제적 발전단계와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2008년 현재 사하라사막이남 48개 국가들 중에서 39개 국가가 참여[5]

4) 시장기반 경제, 법의 지배와 정치적 다원주의,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제거, 지적재산권의 보호, 부패척결 노력, 빈곤퇴치정책, 의료와 교육기회의 확대, 인권보호와 근로자 권리보호 그리고 일부 노동관행의 제거 등.

5)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http://www.agoa.gov)

○ 기업 경영 환경 개선

- **개선되고 있는 기업 경영 환경 :** 아프리카 지역의 기업 경영 환경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상승
  - 2010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모리셔스가 한국보다 높은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4위, 보츠나와가 45위에 올라 있음. 특히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업 경영 환경 개선노력이 뚜렷해짐
  -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기록한 국가의 비율은 2008~2009년 기간 중 아프리카는 63%로 라틴아메리카 59%보다 높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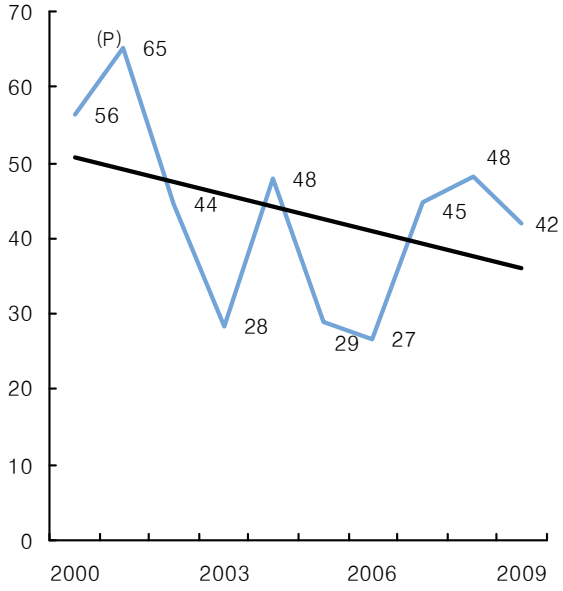
- **감소세에 접어든 분쟁 :** 2000년대 들어와 아프리카에서 분쟁의 감소가 확연하게 진행됨
  - 통계는 2001년에 분쟁지수가 6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29, 2006년 27로 하락하고 있어 감소세를 반증
  - 오랜 동안 큰 규모로 진행되었던 내전이 끝남으로써 이제 아프리카는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음[7]

<아프리카 국가 기업경영환경 개선>

	2007년	2008년	2009년
모리셔스	27	24	17
남아공	35	32	34
보츠와나	51	39	45
르완다	150	143	67
잠비아	116	99	90
나이지리아	116	120	125
마다가스카르	149	144	133
모잠비크	134	140	135
한국	30	23	19

자료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각년.

<아프리카 분쟁 지수>



자료 : African Economic Outlook DB.

6)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0*, 2010.
7) Conflict Trends in Africa 1946-2004,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2006.

3. 한·중·일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

○ 교역 측면

- **개관** :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 증가율은 2006년~2008년 기간 중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
  ·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과 수입 규모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미약한 수준

- **한국** :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2006년 77억 3,000만 달러에서 2008년 93억 8,600만 달러로 21.4% 증가
  · 반면 수입은 2006년 43억 7,200만 달러에서 2008년 40억 5,200만 달러로 7.3% 감소

- **중국** : 對아프리카 수입이 수출보다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 기록
  · 對아프리카 수출은 2006년 229억 2,600만 달러에서 2008년 432억 9,400만 달러로 88.8% 증가하고, 수입도 동 기간 중 268억 5,700만 달러에서 528억 8,400만 달러로 96.9%나 증가함

- **일본** : 수입 규모와 증가율이 수출을 능가하고 있음
  · 對아프리카 수출은 2006년 79억 3,200만 달러에서 2008년 111억 1,800만 달러로 40.2% 증가하고 수입은 동 기간 중 128억 5,800만 달러에서 193억 2,200만 달러로 50.3% 증가

<한·중·일 對아프리카 교역 규모 추이>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한국	7,730 (24.6)	4,372 (48.4)	8,257 (6.8)	4,317 (-1.3)	9,386 (13.7)	4,052 (-6.1)
중국	22,926 (40.5)	26,857 (34.5)	31,870 (39.0)	34,445 (28.3)	43,294 (35.8)	52,884 (53.5)
일본	7,932 (8.1)	12,858 (32.4)	9,943 (25.4)	14,135 (9.9)	11,118 (11.8)	19,322 (36.7)

자료 : 1) 한국 기획재정부, 중국 통계연감; 일본 재무성.
2) 한국무역협회(Kita); IMF.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투자 측면

- **개관** : 한국의 對아프리카 직접투자(FDI)는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은 수준을 기록
  - 한국의 對아프리카 투자액이 전체 직접투자 대비 비중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은 수준임

- **한국** : 한국의 對아프리카 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 이후 감소세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규모를 늘려가고 있음
  - 한국의 아프리카 직접투자액은 2006년 7억 7,000만 달러(전체 직접투자 대비 3.9%), 2007년 1억 7,000만 달러(0.6%), 2008년 2억 8,000만 달러(0.8%)로 감소세임

- **중국** : 반면 중국은 2006년 각각 21억 2,000만 달러(3.0%), 2007년 15억 7,000만 달러(5.9%), 2008년 54억 9,000만 달러(9.8%)로 규모와 비중이 확대

- **일본** : 일본도 2006년 9억 달러(1.8%), 2007년 11억 달러(1.5%), 2008년 15억 2,000만 달러(1.2%)로 증가세임

<한 • 중 • 일 對아프리카 직접투자 현황>

(억 달러, %)

	2006		2007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국	7.7	3.9	1.7	0.6	2.8	0.8
중국	21.2	3.0	15.7	5.9	54.9	9.8
일본	9.0	1.8	11.0	1.5	15.2	1.2

자료 : 한국 기획재정부, 중국 통계연감; 일본 재무성.
주 : 비중은 각국의 총FDI에서 아프리카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원 개발 협력

- **개관** : 한국의 대아프리카 자원개발 사업은 중국의 노력과 성공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

- **한국** : 19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최근에야 아프리카에 진출
  ·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369개 사업에 진출하여 2006년 말 현재 218개 사업 진행 중이며 2006년 말 현재 총 투자실적은 103.8억 달러
  ·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미주, 아시아, 호주 등에 집중하였다가 2004년부터 총 17개국을 대상으로 전개된 정상의 순방외교는 아프리카 등으로 다각화하는 계기가 됨

<최근의 해외자원개발 성과>

국가	지역	내용
러시아	서 캄차카광구	- 2005년 12월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 (15억 배럴)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 2006년 6월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 (2억 7천만 배럴)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2개)	- 2006년 3월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12억 배럴)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 2006년 8월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3억 배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 2006년 5월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 (1억 5천만 배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 2006년 11월 지분투자계약 체결 (니켈금속 35만 톤)

자료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7~2016), 산업자원부, 2007년 8월

- **한국식 패키지형 사례** :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노력은 중국의 전략을 따라한 한국식 '패키지형 모델'의 성공사례
  · 자원보유국이 필요한 경제발전 경험, 에너지 인프라 및 SOC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모델로 나이지리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적용
  · 중국은 이미 자원개발과 SOC건설을 연계한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실천에 옮겨오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둠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성공사례>

국가	내용
나이지리아	- 발전사업 진출과 연계
마다가스카르	- 2007년 2월 120Mw급 화력발전 사업 수주 (1억 8천 만 달러 규모)

자료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7~2016), 산업자원부, 2007년 8월.

- **중국** : 198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세계진출전략 (going global)'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해외자원 확보노력이 본격화
  - 2007년 현재 약 70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이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중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국영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
  - 에너지, 건설, 기계 그리고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개발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받는 특혜융자와 신용 그리고 정부의 세제혜택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8)]
  - 2006년에 있었던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정상 포럼 (2006 Beijing Summit of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에서 후진타오주석은 아프리카에 대해 5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계획을 천명

<최근의 주요한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활동>

자원	대상국가	내용
석유와 천연가스	앙골라	- 2006년 3월 SINOPEC과 앙골라 국영 Sonangol은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합작으로 Sonangol-Sinopec International (SSI) 설립에 합의 - 앙골라의 Lobito 지역에 제2의 정유공장건설 - SINOPEC (55%) 그리고 Sonangol (45%)의 지분분포
	수단	- 2006년 후반까지 중국정부와 CNPC는 수단에 40억 달러를 투자 - CNPC는 Greater Nile Petroleum Operating Company (GNPOC)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Muglad 만에서 유전개발 - CNPC와 GNPOC는 수단에 모두 8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에는 홍해쪽의 Marsa al-Bashair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포함
	나이지리아	- CNOOC는 Akpo지역의 지분45%를 22억 7천만 달러에 확보하였고 채굴권의 35%를 6억 달러에 매입
	가봉	- Total-Gabon과 Sinopec은 2004년 연간 1백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
	에티오피아	- Zhongyuan Exploration Bureau는 Gambella만에서 말레이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의 부탁으로 시추작업 - Ogaden지역에서 시추작업 진행
삼림	가봉과 기니	- 가봉과 기니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60%를 중국이 매입
구리	잠비아	- 중국은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 - 1999년에 구입한 Chambezi 구리광산은 현재 중국의 가장 큰 해외 구리채굴 광산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과 나미비아	- 투자증액

자료 : The Impact of the Chinese Presence in Africa, JETRO London, April 2007.

8) The Impact of the Chinese Presence in Africa, JETRO London, April 2007

4.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 잠재력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은 미약

· 한국의 對아프리카 교역(수출과 수입) 증가율 및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미약하고 對아프리카 직접투자(FDI)도 이들 중·일에 비해 미약

· 한국의 對아프리카 자원개발 사업도 중국의 노력과 성공에 비해 미약

-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확대가 필요

· **첫째,** 10억 인구가 사는 아프리카에 진출함으로써 거대 시장을 확보하게 됨. 따라서 국내 자동차 수출이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프리카에 맞는 자동차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둘째,** 농업 외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부상

· **셋째,** 국제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를 통해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가 시급

· **넷째,** 중장기적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원유의 대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아프리카로 부터의 안정적인 원유 수입처 확보 노력 필요

○ 과제

-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인 시장개방정책을 활용하여 아프리카를 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

· 미국과 유럽의 대저개발 시장 개방정책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과 EBA(Everything but Arms)를 이용하여 우회수출 기지를 아프리카 국가에 건설

·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은 섬유 생산에 있어 해당 아프리카 국가의 노동력이 투입되기만 하면 원자재의 국적에 상관없이 섬유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

· 유럽의 EBA(Everything But Arms) 규정은 2001년 2월 시행되어 최빈국(最貧國)으로부터 품목 가운데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음

-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연계시키는 전략 필요

· 아프리카 자원보유국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는 대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 전략 확대 및 지속

· 사회간접투자를 '종합세트'로 묶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자원 개발로 연결시킴

- 한국 IT 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아프리카 개척에 주력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발전으로 인해 통신에 있어 중간 단계 곧, 유선통신을 거치지 않고 무선통신의 시대로 곧 바로 진입

· 발전 및 전력 시설의 미비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공급할 경우 휴대전화를 넘어서 노트북 컴퓨터나 i-pod와 같은 휴대용 IT기기에 대한 대규모 시장 개척이 가능

- 아프리카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 사용이 요구됨

· 직접투자자금 및 ODA 유입 등 영향으로 인프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원자력, 이동통신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 진출에 적극적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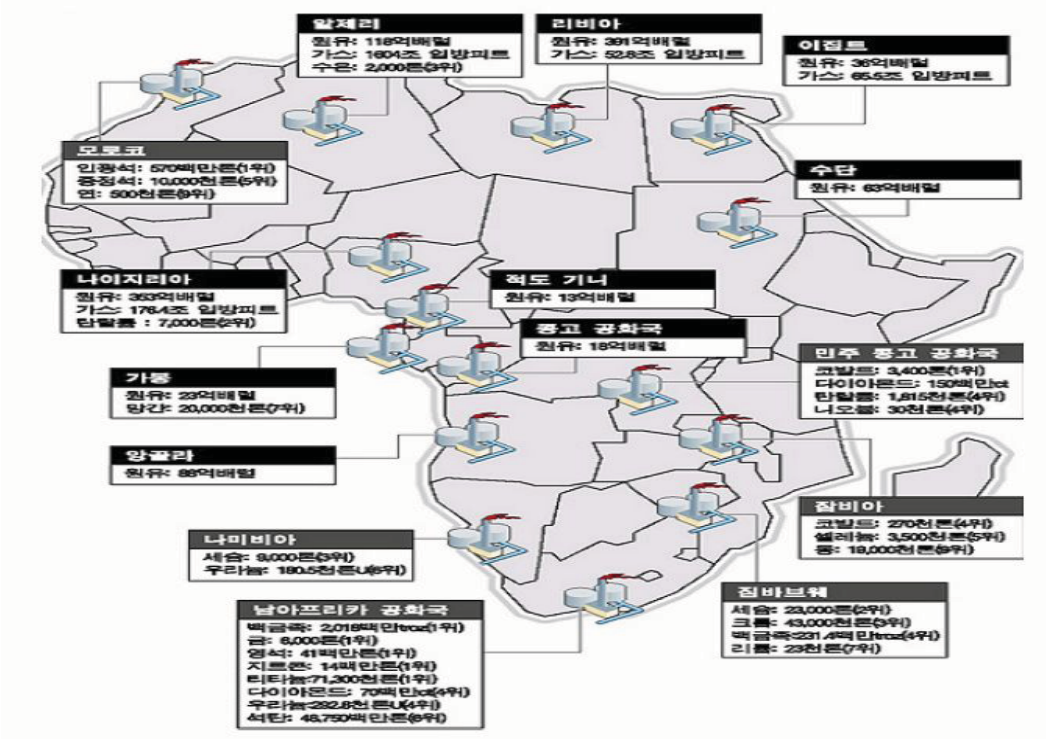
· 특히, 아프리카의 발전 플랜트 개발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력은 아프리카 개발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임

· 아프리카 관련 연구센터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만의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함

임희정 연구위원 외(2072-6218, limhj9@hri.co.kr)

□ 참고 : 아프리카 자원 분포

<아프리카 자원 분포>



국가	주 요 자 원
알제리	- 원유 118억 배럴, 가스 1,604조 입방피트, 수은 2,000 톤(3위)
리비아	- 원유 39억 배럴, 가스 52.8
이집트	- 원유 36억 배럴, 가스 65.5조 입방피트
모로코	- 인광석 5억 7,000만 톤(1위), 중정석 1,000만 톤(5위), 인 50만 톤(9위)
수단	- 원유 63억 배럴
나이지리아	- 원유 353억 배럴, 가스 176.4조 입방피트, 탄탈륨 7,000 톤(2위)
적도기니	- 원유 13억 배럴
가봉	- 원유 23억 배럴, 망간 2,000만톤(7위)
콩고공화국	- 원유 18억 배럴
콩고민주공화국	- 코발트 3,400만 톤(1위), 다이아몬드 1억 5,000만 캐럿, 탄탈륨 181만 5,000톤(4위), 니오륨 3만 톤(4위)
앙골라	- 원유 88억 배럴
잠비아	- 코발트 27만 톤(4위), 셀레늄 350만 톤(5위), 동 1,800만 톤(9위)
짐바브웨	- 세슘 2만 3,000톤(2위), 크롬 4,300만 톤(3위), 백금족 2억 3,140만 troz(4위), 리튬 2만 3,000톤(7위)
나미비아	- 세슘 9,000만 톤(3위), 우리늄 18만 톤U(6위)
남아프리카공화국	- 백금족 20억 troz(1위), 금 6,000톤(1위), 영석 4,100만 톤(1위), 지르콘 1,400만 톤(1위), 티타늄 7,100만 톤(1위), 다이아몬드 7,000만 톤 개럿(4위), 우라늄 29만 2,800만 톤U(4위), 석탄 487억 5,000만 톤(6위)

자료 : 미쯔이물산전략연구소, '자원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아프리카', 2008.